동학, 1백주년 맞이해 다양한 문화적 탐색 이뤄져

동학농민전쟁 민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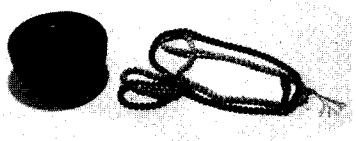
1894년 시금으로부터 1백년전, 반외세를 부르짖으며 인내천(人乃天)과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실현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렸던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될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농민군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무기류등을 모은 '1백주년 기념 동학농민전쟁 민속전'이 서울 장담구 청담동에 위치한 짚·풀 생활사박물관에서 3월15일~6월15일까지 3개월간 열릴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쇠가죽 솥, 갑발, 패랭이, 삿갓등 당시 농민군들의 생활용품을 비롯해 목검, 죽창, 몽둥이, 활등 농민군들의 무기와 노비문서, 토지문서, 동학관련 서적등이 전시되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시물 중에는 전시매 중요한 조리 기구로 사용되었던 쇠가죽 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솔발, 가혹한 정치를 일삼은 수령을 태워 내쫓거나 높이 매달아 불태워 죽였다는 주저리, 1894년 4월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으로 위장시켜 대숲을 거둔 허수아비,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이 칼춤을 출때 사용했다는 의식도구 등이 눈길을 끈다.

이 전시물들은 실물이거나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재현한 것들이다. 이 밖에도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사진과 일본군의 서울 침입화보,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왜척양(斥倭斥洋), 경천안민(敬天安民), 후천개벽(後天開闢)등의 글자가 적힌 청·황·적·백·흑의 동학 농민군의 깃발등도 선보인다.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장편 서사시 '금강'을 쓴 신동엽 시인의 미망인이기도 한 박물관 관장 임병선씨는 "동학 1백주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몸짓으로 그 넋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짚과 풀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농민생활을 연구해오면서 1백주년을 맞아 전열장 안에서 잠자던 민속학 또한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설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동학농민운동을 민속학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며 이번 전시의 기획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전쟁중 관군이 동학군으로 부터 노획한 전리품, 염주와 천도교 의식에 제수로 놓았던 청수그릇.

민속학적으로 '동학'을 보는 기회

창작 뮤지컬 '들풀'

올해로 1백주년을 맞이한 동학혁명.

현재 '동학혁명'을 주제로 한 연극 가운데 유일하게 막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들풀'.

기획·극본 등 모든 면이 순수 창작물인 '들풀'은 역사에서 빛을 얻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살다 간 민초들의 삶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부각되는 영웅적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다소 산만할 수 있는 단점을 '뮤지컬'이란 장르의 흥인력과 드라마적 요소의 가미로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들풀'은 음악을 도맡은 연출자 권호성씨와 극작가이자 극단대표인 김정숙씨가 10년전에 약속을 했었고 5년전부터 기획해왔다는 것이 이색적이다.

조연출 장소정씨는 이와관련 "지난 1월말부터 전 스텝이 작곡두 전도도 본당에 도여 매일 하루 12시간씩 연습을 강행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히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장 조연출자는 "본래 동학혁명 격전지인 공주(우금치)·광주 등지에서의 지방공연을 계획했으나 '문예진흥원'의 지원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에서 단기 공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같은 심정은 동학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하늘이다)가 국립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될 계획이라는 점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렇듯 일관되지 못한 문민정부의 예술정책이 어느 시기에나 바로 잡힐 지 우려가 앞선다.

한편 신동엽의 서사시를 극화한 극단 '금강'의 (금강)과, 서울예술단의 (징게 맹게 너른 들)(김제 만경 넓은 들)이 시시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 전반기까지 금서로 묶였던 (금강)이 극(금강)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예술단의 (징게…)에서도 일부 원용돼 시대의 해빙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 또한 극단 '아리랑'의 (갑오세 가보세)는 극단의 대표이자 기획자인 영화배우 김명곤씨가 오랜만에 연극무대에 출연할 예정이며, 연우무대의 (사람이 하늘이다)등도 금년중에 오를 예정이다.

◇우금치 전투를 소재로한 뮤지컬 '들풀'의 한장면.

충분한 연습, 뮤지컬 장점 살려

문화원 탐방

④ 독일문화원

남산 아래 위치하고 있는 독일문화원은 1층 통유리 건물로, 들어서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지상1층, 지하3층의 건물은 도서관과 카페테리아, 어학강좌실, 강당, 매점,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은 독일 서적은 물론 주간지와 일간지, 신문,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레코드판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레코드판을 제외한 시청각 자료는 대출이 가능하고 비디오 테이프와 레코드판은 직접 골라 비디오실이나 도서관내 음악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독일 TV뉴스 '오늘'을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30분~9시30분, 12시~13시30분, 두차례 상영한다.

어학강좌는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하며 독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부터 독일어 회화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독일문화와 독일사회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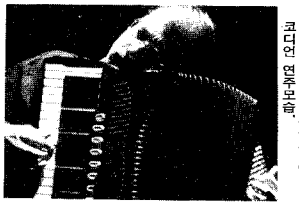
독일문화원측은 3·4월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3월8일~4월17일에는 금세기 저명한 예술가 중 하나인 '막스 에른스트의 판화·도서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어 그의 창조적인 판화 작업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월22일~4월9일에는 16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7명으로 구성, 비판적이고 지적인 가사의 락음악을 추구하는 '핑크헬 핑크헬'이라는 독일학생 락그룹이 방문기간 동안 일반공연장, 대학, 고등학교에서 한국어와 독일어로 공연한다.

4월12일~16일에는 독일의 영화학교와 대학의 영화과에서 매년 제작되는 수많은 영화중 단편영화 34편이 오후 4시, 6시 두차례 예술의 전당에서 소개된다.

□문의전화 754-9831~3

〈진지현 記者〉

막스 에른스트의 판화·도서전 열려



◇오는 4월1일 후쿠오카 연주모습 연하는 슈테판 코다인 내한공

문화단신

뮈토스, '로미오…'공연

극단 '뮈토스'가 제4회 정기공연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 오경숙 구성 연출로 공연되는 이 작품은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죠지 오웰리 '1984'를 4·19정신과 맞닿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뮤지컬로 담아내고 있다.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구술기록 컴퓨터를 앞에 두고 일하던 중 컴퓨터의 혼란으로 R.J가 튀어나오는데…

3월12일~4월17일(5시, 7시30분)바탕골 소극장

□문의 : 745-0745

작은신화, '황구도'공연

극단 작은신화는 최용훈 연출, 오정학 기획의 황구도(黃狗圖)를 공연한다.

동화같은 아담과 캐시의 사랑이야기로 이들은 '개'이다. 명료한 우화의 전달효과와 인간과 개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으며 시적인 서정성이 충만하다.

3월 10일~4월 30일(화·수 7시30분, 목~일 4시30분·7시30분), 연우 소극장

□문의 : 744-7090

학전, '그자매…'연장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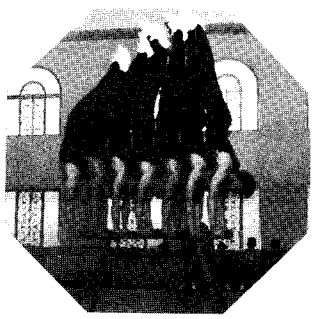
극단 학전은 개관 3주년 기념작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연장 공연한다.

오랜만에 한무대에 서는 한국 정상의 여배우 일컬을 수 있는 박정자·손숙의 연기가 기대되며 이 둘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치밀한 심리극이다.

4월1일~5월1일(화~금 7시30분, 토·일 3시·6시), 학전소극장

□문의 : 763-8233

남한의 형, 김한화백 ⇄ 지상만남 ⇄ 북한의 동생, 김철시인



덴마크 체조단의 시범

사회 체육분야의 선진국, 덴마크의 대표 체조단이 지난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캠퍼스 체육과학대학 테니스장에서 내한 이후 첫 시범 공연을 가졌다.

올림픽 조직위 사무국차장을 역임한 장주호(체과대·체육학)교수의 안내로 우리학교를 방문한 '덴마크 체조단'은 기계식 체조에 리듬과 템포, 스윙의 부드러움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2시간동안의 공연은 체육대학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문화부〉

"사같은 자유전영인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이지만 그가 갈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답게 형상화된 고향(러시아)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그의 작품세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원로 김한(金漢)화백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일관된 자신의 마음의 계절을 표현한다. 그의 고향 함북 성진이 바다와 더불어 산 푸른 체험담을 추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19세때 두산터울의 동생과 전쟁의 상흔으로 헤어져 분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날 수 없었다. 북에 남아 있는 동생 김철(金哲)시인의 생사조차 확연히 알 수 없을 때 북한의 시를 연구하는 김재홍(문리대·국문)교수를 통해서 그가 그곳의 전후대표시인으로 성장했음을 알았다. 제3국을 통해 어렴사리 서신이 한두번 오갔을 뿐 만나지 못한 두형제는 '고향의 포구'를 주제로 한 시와 그림으로 지상(紙上)에서 만나게 된다.

□그림 : 김한(포구장터의 여인들) 1993年作

□시 : 김철(포구의 겨울) 1958年作

〈이유경 記者〉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안 변하면 망한다!

창업 이래 40여 성상(星霜)을 걸어 온 럭키금성이 비전 실현을 통한 혁신으로 21세기 초우량기업이 되겠습니다.

"안 변하면 망한다"

스티븐 호킹의 교훈

루 게릭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채 컴퓨터가 달린 휠체어에 온몸을 의지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불태우는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1광년은 초속 30만km의 빛이 1년동안 달린 거리)인 은하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은하라는 것도 근대식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주는 10억 년마다 5내지 10%씩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먼 천체의 경우라면 그 빛이 약 80억 년 전에 떠난 빛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그 과거의 모습일 뿐이다. 어쨌든 우리가 밝혀놓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89개 성좌도 이미 79억 년 전에 우주 변화의 무쇠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르며, 또한 우리는 79억 년 364일 전에 새로이 탄생한 어떤 별빛을 내일 밤 처음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벗겨도 벗겨도 신비로움만 더해 가는 시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기업혁신의 필요성

1952년 세계 100대 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던 70여개의 기업이 23년 뒤인 '75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업 수명 30년'이라고 한다. 톰 피터스는 『경영혁명』에서 "『포 1억 달러 미만』의 시장 투자자본 이익률은 27%임에 견주어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에서는 평균 11%에 그쳤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한마디로 이른바 대기업병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새로운 대응' 곧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혁신만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쉽어날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모르나 쉽고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보편화되다시피한 럭키금성의 혁신운동은, 그 전이 온 길을 살펴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지금은 기업혁신운동의 일대 전환기

70년대 후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거듭나야겠다고 기업혁신에 도전한 기업의 성공률은 무려 71.4%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가 80년대 전반기에는 47.2%로 떨어졌고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무려 37.3%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사실은 기업혁신에 나서는 기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을 선도한 기업이 그나마 성공한 화류에 놓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신념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